코스콤 ⊠ 오라클 금융클라우드 DB서비스 활성화 나선다

프레스룸

금융IT 발전을 위한 **코스콤의 다양한 활동**들을 빠르게 알려 드립니다.



코스콤, 글로벌 *DBMS 1*위 오라클과 기술협력
금융클라우드 고객을 위한 편리한 서비스 우선 제공

□ 코스콤(사장 정지석)과 한국오라클(사장 탐송)이 금융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코스콤 금융클라우드와 오라클 클라우드 DBMS를 연동하는 공동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.

□ 양사는 9일 코스콤 여의도 본사에서 업무협약식을 갖고 국내 금융클라우드 시장에서 각 사의 장점을 살린 DBMS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 하겠다고 밝혔다.

□ 이번 제휴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 고객들은 금융클라우드 내에서도 지금까지 사용해 온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돼 서비스 수준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.

□ 특히 한국 금융시장 내 상당수 기업들이 오라클 DBMS를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, 이번 협약은 금융클라우드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 고객사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

다.

□ 이번 협약으로 양 사는 ▲클라우드 기술 교류 ▲금융클라우드 공동 마케팅 ▲코스콤 내부 서비스의 클라우드 이용에 관한 협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금융클라우드 서비스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.

□ 양 사가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DBMS(DataBase Management System,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)란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저장된 방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, 응용프로그램들이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다.

□ 최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업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DBMS는 컴퓨터 운영체제(OS)에 못지 않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인식되고 있다.

□ 코스콤은 지난 10월 NBP와 함께 국내 최초 금융전용 퍼블릭 금융클라우드 존을 론칭하고 최근 금융보안원이 구축하는 클라우드 사업을 수주 하는 등 금융클라우드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.

□ 오라클은 미국을 대표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글로벌 DBMS 분야 시장점유율 1위 업체다. 은행처럼 데이터베이스의 높은 신뢰도와 정교함을 요구하는 기업에서 많이 사용해 오라클 DBMS가 업계표준으로 알려져 있다.

□ 탐송 오라클 사장은 “글로벌 벤더와 국내 금융 IT사의 상호 강점을 공유한 상생협력관계가 좋은 모델이 될 것”이라며, “국내 금융클라우드 분야에서 선도적인 사업역량을 보유한 코스콤과 데이터 관리영역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 및 Gen21) 기반의 국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보유한 오라클의 금번 파트너십 체결로 금융클라우드 시장에서 좋은 협업을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
□ 정지석 코스콤 사장은 “오라클과 함께 금융클라우드에 대한 기술교류와 공동 마케팅을 확대해 앞으로 치열해질 경쟁에 대비 할 예정”이며 “앞으로도 클라우드 전환을 망설이고 있는 고객사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우리가 먼저 고민하고 한발 앞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